

2030년까지 기반시설 완비 · 2050년까지 정주여건 갖춘 도시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새만금 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한 바에 따라,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는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계성 및 창출에 집중했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보고가 있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했다.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했다.

5대 개발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이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했다.

2050년 사업 완료율 목표를 2단계(~2030년): 78%, 3단계(~2040년): 87%, 4단계(~2050년): 100%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해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을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방재림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하며, 폐기물처리 시설 위치 조정과 재활용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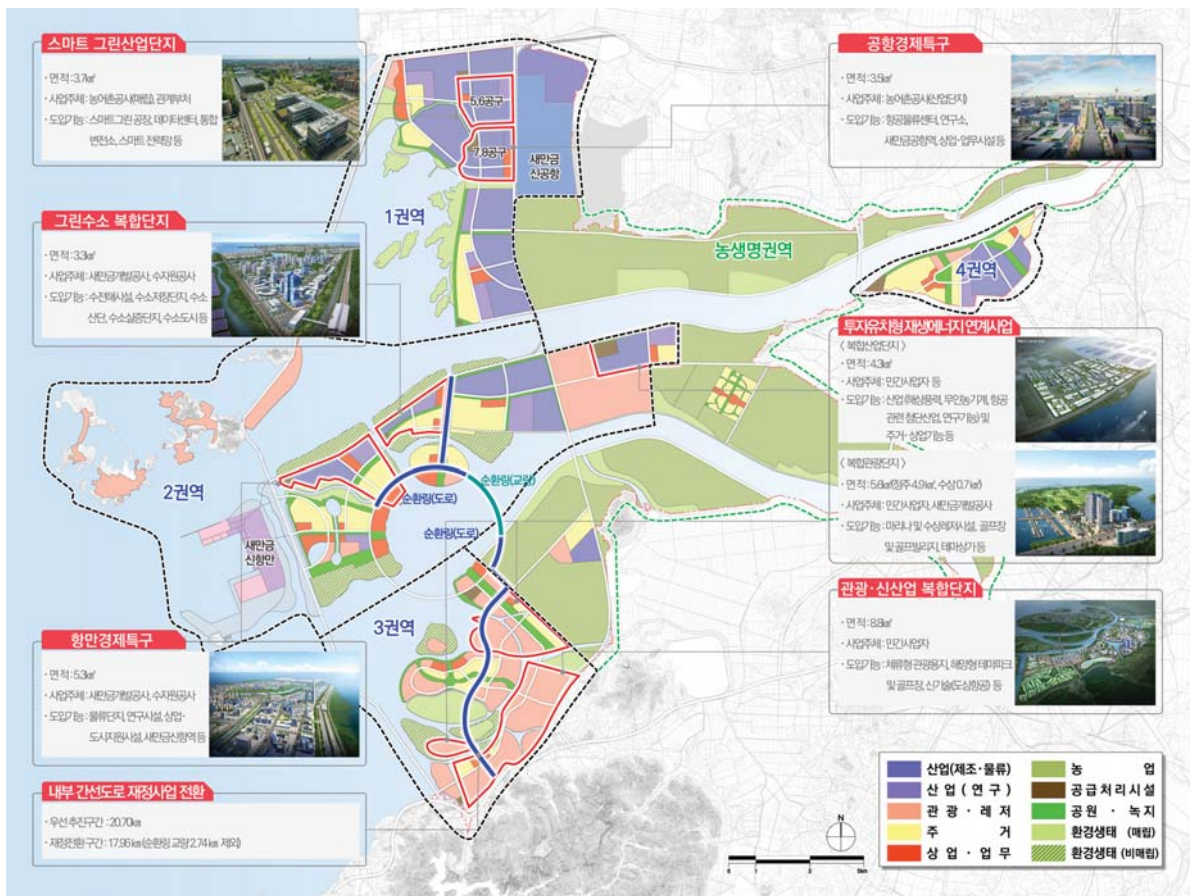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감안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한바, 새만금 인근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새만금 2단계 핵심사업>



새만금개발청, 그린성장 실현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설정 신산업 허브 등 5대 목표 제시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전환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 여건 획기적으로 개선 방침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등

농식품부,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금강 서포양수장 등 여유수량 활용에 농업용수 공급

환경부, 새만금유역 수질관리 단기·중장기대책 구분 추진 상류·새만금호내에 각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키로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내로 들어오고 있다.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활용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서포양수장, 욱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보강과 수로 연결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방안으로 연구용역,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농업용수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부설계를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 당국 및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환경부)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안'을 보고했다.

후속수질관리대책은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단기대책(2023년까지)'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해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수질관리대책안에 따른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감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단기대책 종료 이후 합의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해 수질 개선 효과 평가, 목표 수질 조정,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유역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